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폐막

케냐 키루이 마라톤 우승



케냐의 아벨 키루이(29)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키루이는 4일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해 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대구은행네거리~반월당네거리를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에서 진행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 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17분38초의 기록으로 1위로 끝냈다.

이어 케냐의 빈센트 키프루토(24)가 2시간10분07초로 2위로 골인했고, 에티오피아

의 페이사 릴레사(21)가 3위(2시간10분32초)를 차지했다. 이로써 케냐는 이번 대회 남녀 마라톤을 석권했으며 남자는 2007년 오사카 대회부터 3연패를 달성, '세계 마라톤 최강'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대회기록(2시간06분54초)을 수립하며 우승한 키루이는 이날 레이스 중반 선두로 나선 후 별다른 경쟁 없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정진혁(21)과 김민(22·이상 건국대), 황준현(24·코오롱), 황준석(28·서울시청), 이명승(32·삼성전자) 등 5명은 홈 코스의 이점 속에 대구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달렸으나 실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레이스 중반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정진혁이 2시간17분04초로 23위, 이명승이 2시간18분05초의 기록으로 28위에 올랐다.

/대구=한신협동통채재단



4일 밤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예선 경기에서 38초94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계주 대표팀 선수들(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임희남)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400m 계주 '한국新'

한국 '노메달 개최국' 불명예

한국 육상은 홈에서 벌어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높은 세계의 벽만 실감한 채 물러나야 했다.

이번 대회 국가 계양대에 태극기가 올라간 것은 이벤트 경기로 열린 휠체어 육상이 유일했다. 1995년 스웨덴과 2001년 캐나다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노메달 개최국'이 된 것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 10개 종목에서 톱10 선수를 배출하겠다는 '10·10'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결승에 진출하거나 톱10에 진입한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남자 경보 20km의 김현섭(26·삼성전자)이 6위에 올랐고, 남자 경보 50km의 박철성(29·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7위를 차지했다. 남자 멀리뛰기에서는 김

덕현(26·광주시청)이 시즌 최고 기록과 함께 예선을 통과했으나 이틀남 세단뛰기 예선에서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결승 무대를 밟지도 못했다.

높은 벽을 실감한 대회였지만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은 한국신기록으로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여호수아(24·인천시청)-조규원(20·구미시청)-김국영(20·안양시청)-임희남(27·광주시청)이 이어달린 남자 대표팀은 대회 폐막일인 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1회전에서 3조 1레인에서 뛰어 38초94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조 5위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5월 23일 만에 한국기록을 39초04까지 줄였던 대표팀은 이날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이번 대회 들어 한국 선수단의 네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번개' 세리머니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3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m 결승전에서 19초40의 올해 세계 최고기록으로 결승선에 들어와 번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타들이 남긴 말말말

9일간의 열전을 치른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4일 밤 막을 내렸다.

수많은 선수가 대구스타디움의 필드와 트랙을 뜨겁게 달렸고,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재미있는 세리머니와 말솜씨를 보여주며 경기 외적인 부문에서도 팬 서비스를 했다.

하지만 볼트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했던 8월28일 100m 결승에서 부정출발로 어이없게 실격당했다. 볼트는 그때 출발선 뒤쪽 스타디움의 벽을 치면서 "누구나(Who is it?)"라고 외쳐 많은 이들이 발언의 배경을 궁금해했다. 어떤 외부 요

볼트 "100m 너무 긴장해 환청 경험"

류상 "손에 손 잡고 뛴 것 특별한 일"

인이 볼트의 부정출발을 유도했다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볼트는 3일 2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100m 결승 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환청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아 의문을 풀어줬다.

출전 선수들이 남긴 말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을 정리했다.

▲"결승선을 앞두고 아무도 옆에 없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다" = 여자 1,500m에서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차지한 제니퍼 배링어 심슨(미국)이

우승 소감을 밝히면서,

▲"뒷바람이 살살 불어 흥분했다" = 남자 100m 자격예선에서 부정출발로 실격한 김국영(안양시청)이 부정출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계기록 보유자와 '손에 손을 잡고' 뛴 것은 매우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다이론 로블레스(쿠바)의 손에 부딪혀 균형을 잃는 바람에 금메달을 놓친 류상(중국)이 귀국 후 베이징에서 열린 광고행사에서 한 말.

▲"우리는 부정출발 걱정 없어요" = 10종 경기 우승자 트레이 하디(미국)가 10종 경기는 한 종목에서 실수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며,

▲"내 안의 세계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다" = 이신바에바가 장대높이뛰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탈락한 뒤 밝힌 소감.

▲"내가 말해서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성별 논란을 겪었던 여자 800m의 카스터 세메나(남아공)가 준결승 진출 후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이따위 저주에 굴복하기에는 열심히 연습한 것이 아깝다" = 표지 모델로 등장한 선수가 부진한 성적을 낸다는 '데일리 프로그램의 징크스'를 깨고 여자 100m 허들에서 우승한 엘리 피어슨(호주). /연합뉴스

GRAND OPEN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위 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